

순창군, 중국 관광객 유치 '청신호'

중국 대학교 처장단 48명 방문
주요 관광지·농업시설 등 견학
29~30일 학생단 300여명 방문



지난 16일 순창을 찾은 중국 대학교 처장단 일행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견학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에 중국 대학교 처장단이 다녀가면서 향후 중국 관광객 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대학교 처장단 48명이 지역 주요 관광지부터 농업연구시설 등을 견학했다.

이들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강천산과 고추장민속마을, 실랜드, 친환경 농업의 중심인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았다.

또 그 동안 중국 대학교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이어온 훈포장 등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이뤄진 행사로 전라북도 지역의 인제 유지는 물론 순창지역에 향후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30일에는 중국 대학교 학생단 300여명이 순창을 찾을 예정이다.

방문 첫날인 16일 강천산을 둘러보며 이

제 막 돌아온 아기단풍의 매력과 오는 8월 1일 본격 개장을 앞둔 이색적인 단월야행(丹月夜行) 야간 기행에 감탄했다.

또 오는 2020년에 들어설 강천산 수(水) 체험센터도 미리 소개돼 관심이 집중됐다. 이곳은 순창의 음용 온천수를 활용

해 힐링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조성 중인 공간이다. 동굴형 체험관, 관광호텔(2021년 준공

예정), 수 테라피시설 등 물을 이용한 힐링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방문단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전통발효 소스인 고추장 체험을 위해 장류 체험관을 찾아 고추장과 고추장 피자 등을 만들었다.

이어 미래 순창을 이끌 발효 산업의 토대인 발효 테마파크도 방문단의 관심을 받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중심인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6차산업인 농촌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대학교와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순창을 농촌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와 협약을 맺고 있는 중국 석가장대 예비 유학생 팸 투어도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정읍시, 전기저상버스 시범운행 실시

정읍시가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시범운행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기저상버스는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다.

시는 지난 18일 47인승 전기저상버스를 활용, 수성동지구 제일아파트-정읍역-생고를 시장-학산고-중앙로 등 20km 구간을 운행했다.

시는 시범 운행을 통해 협소한 도로와 급

커브 구간의 주행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또 버스 승하차 장치의 승강장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사진>

시는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0년부터 전기저상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범운행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임은 물론 교통약자의 편의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중기 우수인력 확보 지원사업 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익산형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익산시가 중소기업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식에는 정현을 시장과 김현태 중진공 부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사업 협약 체결 후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뜻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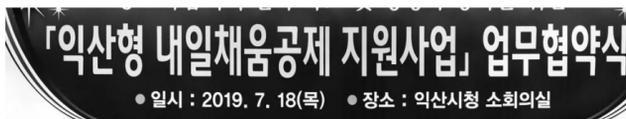
익산형 내일채움공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공제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부담금 10만원을, 기업이 부담금 24만

원을 5년간 공동 적립한 후 만기 시 근로자가 공제금과 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익산시는 기업 부담금 50%(12만원)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공제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손비(비용)를 인정받고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시 600만원을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받고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 대상 근로자를 7월 중 공개 선착순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직무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

고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경영평가' 전북지역 1위 차지

행안부, 270개 공기업 대상

남원시 상수도사업소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270개 공기업에 대상으로 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북지역 1위를 차지했다.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2016년 평가부터 3년 연속 우수등급인 '나' 등급에 선정, 우수한 실적으로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리더십과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등 5개 분야

23개 항목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지 실사를 통해 5단계로 평가했다.

남원시는 상수도 근무 전문성과 재난위기 대응분야별 매뉴얼 구비와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고객·주민 의견수렴·신속한 민원처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노후 상수관로 비용이 동일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군산시,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준비 박차

2020년 개최... 선수·관광객 등 20만명 참가 예상

군산시가 유치한 '2020년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제전은 정식종목 4종목을 포함해 번외·체험·해양행사 등 20

여개 종목이 선유도, 비응항, 은파호수공원 등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임원회와 선수, 관광객 등 2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북도와 제전 준비단을 꾸려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광역 해양레저체험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군산을 서해안 해양 레저관광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판기 군산시 항만해양과장은 "이번 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보와 대외기관 협력, 기반시설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군산시가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1번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수산부가 해양 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 스포츠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친해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축제다. /군산=박근석 기자 nogusu@

고창군로컬잡센터-한전 고창지사 '일자리 창출' 협력

고창군로컬잡(JOB)센터(센터장 김희진)와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임한우)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고창군로컬잡(JOB)센터는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과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구인·구직자 공동 발굴과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고창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된다.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는 검침자회사·배전공사 협력사 등 유관업체와 함께 안정적 전력공급 및 지역 친화적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덕남동, 임야 급매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